



CLUB D

Destination & Differentiation

Fall | 2020



클럽디 거창



클럽디(ClubD), 27홀 규모 '클럽디 거창' 운영 본격화 최적의 자연 환경을 접목한 코스 및 세련된 클럽하우스 완료

국내 유일의 통합운영관리 전문회사인, O&M(Operating & Management) 플랫폼 기업 주식회사 이도(YIDO, 대표이사 최정훈)가 운영 중인 퍼블릭 골프 클럽 브랜드 클럽디(ClubD)가 경상남도 거창에 4번째 클럽디 사업장 운영을 본격화했다.

클럽디에 따르면 총 27홀 규모의 '클럽디 거창'이 골프장 운영 인허가(체육 시설업) 및 새 단장을 마치고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나섰다. 클럽디 거창은 정식 오픈을 기념하여 인터넷 회원 가입 우대, 카트피 할인, 그리고 지역민 할인 등 다양한 고객 맞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클럽디 거창은 경남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감악산 북서측 해발 450~690m에 총면적 약 120만 평 부지에 조성된다. 무엇보다 클럽디 거창은 거창군에 들어서는 첫 골프장으로서 청정 자연을 만끽하면서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



클럽디 거창 27홀의 전장은 국내 외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9,588m(10,485yd)로 그린에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홀이 없는 장점이 있다.

코스별로 EAST코스(3,265m, 3,570yd)는 시원한 장타를 원하는 골퍼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됐으며, WEST코스(3,117m, 3,408yd)는 정교한 샷을 요구하는 코스로서 곳곳에 숨겨진 장애물을 극복하며 골프의 묘미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SOUTH 코스(3,206m, 3,506yd)는 시원한 비거리를 원하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고, 홀 마다의 느낌이 전혀 다른 흥미로운 코스로 구성됐다.

클럽하우스 및 라커룸 등 편의시설은 모던하면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을 최적화했으며, 여성 고객을 위해 라커룸엔 파우더 룸도 설치됐다. 또한, 클럽하우스 내 레스토랑에선 거창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정갈한 메뉴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클럽디 거창은 거창C에서 약 15분 거리로서, 대구, 진주, 남원, 김천에서 1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편리한 접근성도 갖췄다. 한편, 클럽디 브랜드를 운영하는 (주)이도(YIDO)는 이번 경남 클럽디 거창을 비롯하여 충북 보은에 위치한 클럽디 보은(18홀), 속리산(18홀), 전북 익산에 위치한 클럽디 금강(36홀), 인천 드림파크cc(36홀) 등을 포함하여 전체 총 5개 사업장, 총 135홀 규모의 골프장 코스를 운영, 관리하게 됐다. 글 | ClubD MAGAZINE

제4회 서원·클럽디 레이디스 골프 챔피언십 성황리 개최 총상금 4억 원 규모 대장정 마무리...조연희 프로·유지민 씨 우승 차지

국내 골프장 주최 최대 규모인 총상금 4억 원 규모의 '제4회 서원·클럽디 레이디스 골프 챔피언십 대회'가 약 4개월 동안 진행된 대장정을 마쳤다. 특히 이번 '제4회 서원·클럽디 레이디스 골프 챔피언십'은 사상 최대 규모의 상금과 전국 4곳의 골프장에서 예선 및 결선 등 전국적인 규모로 개최됐고, 프로와 아마추어가 한 팀을 이뤄 우승자를 가리는 왕중왕전 등 새로운 아마추어 대회를 선보여 참가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는 우수한 평가 속에 막을 내렸다. 먼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스트로크 방식으로 경기도 파주 서원힐스(200명) 및 충청북도 보은에 위치한 클럽디(CLUBD) 보은(80명)과 클럽디 속리산(80명), 전라북도 익산 클럽디 금강(80명) 등 총 4곳에서 각각 예선전이 치러졌고, 9월 클럽디 금강(60명)과 10월 서원힐스(100명)에서 결선을 거쳐 32명의 왕중왕전 진출자를 선발했다. 예선전 및 결선의 컷오프는 80대 초반으로 백카운트를 적용하여 진출자를 가려내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프로가 참가한 왕중왕전은 정식 대회에 버금가는 긴장감 속에서 치러졌다. 서원힐스에서 10월 11일~12일 양일간 개최된 32강전 및 16강전의 컷오프는 아마추어가 77타(1위 73타), 프로가 72타(1위 68타)로 집계됐다. 대회 마지막 날 진행된 8강, 4강 및 결선은 토너먼트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아마추어와 프로가 1팀을 이뤄 우승자를 가렸다. 대회 최종 우승은 조연희 프로·유지민(스코어 1UP)씨가 차지했고, 상금 6000만 원을 수상했다. 2위는 김도하 프로·신혜원 씨, 3위는 마소라 프로·김경희 씨로 각각 상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이 수여됐다. 4위는 김가연 프로·최지호 씨로 400만 원 상당의 시상이 주어졌으며, 공동 5위는 이보연 프로·최인영 씨 / 이예슬 프로·김선미 씨, 공동 7위는 박교희 프로·김지숙 씨 / 이현지 프로·이영란 씨가 차지했다. 대회를 주관한 클럽디 및 서원 관계자는 "향후 시상 규모 및 대회 참가 규모 확대, 새로운 콘텐츠 발굴 등 대회의 격을 더욱 높여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여성 골프 대회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전문 골프 채널인 SBS골프를 통해 오는 10월 29일부터 중계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원힐스 및 클럽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 ClubD MAGAZINE



감악산의 기운을 가득 담은 거창 시그니처홀 ‘WEST 7번’



경남 거창의 거룩한 산 감악산에 터를 잡은 클럽디 거창 WEST 7번홀은 정면에 보이는 황매산의 영험한 기운을 가득 담은 클럽디 거창의 시그니처 홀입니다. 일출 및 일몰 때의 모습이 달라 같은 홀이라 생각되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바람개비와 호수가 어우러진 최고의 아름다운 전경을 담고 있어 자연속에서 즐기는 골프의 재미를 그대로 간직한 홀이기도 합니다. 182M라는 긴 파3홀이라 롱 아이언이나 유틸리티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린 뒤 공간이 10M 이내로 여유가 많지 않아 클럽 선택에 신중함을 다해야 합니다. 그린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형태로 티샷 공략 지점을 그린 중앙보다 좌측 끝으로 지정한다면 원온하여 좋은 스코어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코스제원 : PAR3홀 182M(화이트 티), 121M(레드티)

글 | 박희정 클럽디(ClubD) 거창 경기팀장



남성적 카리스마가 넘치는 금강 ‘EAST 4번’



천혜의 자연환경 금강하구에 위치한 클럽디 금강 코스는 함라산의 산세를 극대화 하였으며 위협적인 bunker, 코스 면적의 1/3에 달하는 워터해저드를 갖춘 남성적인 카리스마가 넘치는 홀입니다. 그중 EAST 4번(13번) 홀은 금강 코스의 대표적인 홀입니다. 404m 좌측 도그렉 PAR4 홀로 티에서 바라볼 때 위협적인 bunker가 있습니다. 비거리에 따라 전략적인 공략이 필요하며 세컨드 샷시 그린 우측 앞에 bunker를 주의하여 공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린은 앞뒤 2단 그린으로 나뉘어있어 정확한 거리로 공략해야 쓰리 퍼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코스제원 : PAR4홀 404m(화이트 티), 352m(레드 티)
코스기록 : 이글 3회 / 버디 817회 / 파 14,604회
/ 보기 40,040회 / 더블보기 34,575회

글 | 김미건 클럽디(ClubD) 금강 경기팀장



사막의 광활한 능선을 연상케하는 보은 ‘EAST 2번’



365M Par 4홀로 페어웨이의 좌우측의 고저의 차가 사막의 광활한 능선을 연상케 하는 매우 특색있는 홀입니다. 티잉 에어리어에 서면 초록의 드넓은 페어웨이로 통쾌한 드라이버 샷을 날리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홀이지만 거리 욕심을 버리고 I.P 지점으로 정직하게 공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컨드 지점의 좌측 그래스 bunker의 험난한 깊이와 곡선의 아름다움을 잠시 감상하며 숨을 고른 다음 100m 지점부터는 오르막 계산해서 1클럽 이상 넉넉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좌측이 높은 2단 그린으로 핀보다 좌측으로 공략하면 버디를 기대할 수 있는 홀입니다.

코스제원 : PAR4홀 350m(화이트 티), 290m(레드 티)
코스기록 : 이글 9회 / 버디 1,979회 / 파 34,101회 /
/ 보기 69,521회 / 더블보기 50,448회

글 | 허현숙 클럽디(ClubD) 보은 경기팀장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도전적인 속리산 ‘EAST 9번’



자연 계곡을 넘겨 쳐야 하는 마지막 홀로 장타자라면 원온을 노려볼 만한 도전적인 홀로 라운드 내내 쌓였던 긴장감을 날릴 수 있어 무난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홀입니다. 핸디캡 9로 측정 될 만큼 비교적 짧고 par 세이브가 쉬운 홀이지만 좌측 해저드와 우측 OB가 있어 정확한 티샷을 요구하는 홀이기도 합니다. 클럽디 오픈 이래 남성 1분과 여성1분이 드라이버샷 홀인원을 기록한 전설의 홀이기도 합니다.

코스제원 : PAR4홀 297m(화이트 티), 230m(레드 티)
코스기록 : 홀인원 3회 / 이글 65회 / 버디 4,463회
/ 파 56,401회 / 보기 42,207회 / 더블보기 18,673회

글 | 남승미 클럽디(ClubD) 속리산 경기팀장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하늘 위의 쉼터 '클럽디 거창' 레스토랑



박종휘 셰프



미나리 새우전

차돌라면

바람이 만든 낮은 언덕과도 같은 감악산 자락에 조성된 클럽디(ClubD) 거창은, 3대 국립공원인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을 감상할 수 있는 수려한 원경을 지니고 있다. 특히, 가을철 감악산 정상에 오르면 풍력발전소와 함께 아스타 국화가 만발한 천상의 화원을 즐길 수도 있다. 이런 천혜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감악산 해발 450~690m에 조성된 클럽디 거창 클럽하우스에 도착하면 일상의 스트레스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클럽디 거창 1층에 마련된 세련된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은 '도심 속 생활 방식의 어반하우스' 콘셉트로 오픈했다. 골퍼들을 위한 음식은 '박종휘 셰프'가 책임지고 있다. 박 셰프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와는 다르게 외식 및 골퍼장 경력에 10년차의 베테랑 셰프이다. 그가 요즘과 같이 맑고 청명한 계절인 가을철 추천하는 클럽디 거창만의 메뉴는 '미나리 새우전'과 '명란 손두부'이다. 미나리 새우전과 명란 손두부는 클럽디 거창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메뉴다. 잘게 다져진 새우살을 베이스로 미나리를 부드럽게 만든 식감과 아삭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짭조름한 명란젓과 고소한 손두부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클럽디 거창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대표 메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차돌라면'도 인기 메뉴다. 담백한 돼지사골 육수를 근간으로 원기회복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고명(숙주, 계란, 차돌) 등을 풍성하게 올려 고소함을 더 한 4계절 대표적인 힐링 메뉴이다. '어탕국수' 역시 클럽디 거창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인기 메뉴이다. 경남 거창의 맑고 깨끗한 1급수에서 잡은 미꾸라지로 끓인 어탕국수는 방아잎과 잘 어우러진 거창의 이색 메뉴로서 깊은 맛으로 겨울 보양식으로 즐길 수 있다.

글 | ClubD MAGAZINE

INFLUENCER INTERVIEW

유명 배우에서 카페 CEO로 도전... "인생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15년차 영화 배우 한주영

지난 2018년 개봉해 화제를 모은 영화 '상류사회'에서 조연을 맡았지만 강력한 인상을 남긴 배우가 있다. 주인공 역할의 수애와 대립했던 '민 실장' 역할의 한주영(38)이다. 친구와 함께 20대 초반 녹음실에 눌러 갔다 눈에 띄어 인디밴드의 뮤직비디오 주인공으로 연예계에 발을 들여 배우 인생을 시작했고, 각종 CF 및 영화에서 주·조연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그런 그가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정점에서 돌연 카페 CEO로 변신해 제2의 도전을 하고 있다. 직접 카페를 꾸미고, 커피를 제공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며 배우로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그를 만났다.

Q.ClubD :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A.한주영 배우(이하 한주영): 클럽디(ClubD) 사랑하는 골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올해로 15년 차 모델 겸 배우이자 그리고 무엇보다 카페 CEO로 열심히 인생을 사는 한주영입니다. 이렇게 클럽디 매거진을 통해 인사드릴 수 있어 반갑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ClubD : 배우로서 활동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독특하던데요?

A.한주영 : 제가 태어난 곳이 완도예요. 대가족으로 7남매 중 막내여서, 언니 오빠들하고 나이 차이가 크게 나서 어렸을 때 주로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며 지냈는데, 어느 날 가수 지망생인 친구를 따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유명 녹음실로 놀러 가게 됐어요. 말로만 듣던 유명 가수들도 보고, 유명한 녹음실도 가보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한 7시간을 친구랑 정말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본 한 기획사 대표가 배우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한 인디밴드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되면서 배우로서 데뷔하게 됐어요. 그런데 뮤직비디오를 보고 '아~배우는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어느덧 15년 차 배우가 됐습니다. (웃음)

Q.ClubD : 광고뿐만 아니라 영화 등 다양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마담 뵙덕'에서 정우성 씨의 여자 친구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셨더라고요?

A.한주영 : 네, 데뷔 시간에 비해 많은 역할은 한 것은 아닌데요. 신한은행, 여명 808, 삼성 led, 통신사 CF를 비롯한 뮤직비디오 및 독립영화에도 출연했는데, 지난 2009년 개봉된 영화 '그녀에게'를 첫 주연 작품으로 스크린 데뷔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만난 적 있나요?' '저 햇살 속의 먼 여행'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등에 출연했고요. 유명한 작품으로는 '치외법권'에서는 냉철한 경호원 '초희' 역할도 했고요. '마담 뵙덕'에서 심학규의 제자 지은 역으로 출연하고 최근에는 상류사회에서 배우 수애 씨와 대립하는 역할로 출연했는데, 작은 역할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역할을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Q.ClubD : 그렇군요. 그런데 배우로서 한창 소위 잘 나갈 때 카페 경영자로서 변신하셨는데요?

A.한주영 : 음, 2018년에 영화 상류사회에 출연한 이후에 주변에서 감사하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이후에 좋은 영화에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감독님이나 작가님이 원하셨던 표현과 너무 차이가 났어요. 그때 연기에 대해 깊게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배우로서 사랑, 절망,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잘 표현해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고민을 해보니 내면에 있는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지 못했더라고요. '생각보다 내가 배우로서 성장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할 만큼 인생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더 많은 경험을 쌓아보자고 결심하게 됐고, 작지만 나만의 사업을 해보자해서 카페를 경영하게 됐어요.

Q.ClubD : 경영을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A.한주영 :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아무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작든 크든 사업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게 됐죠. 지금 제가 하는 카페도 크지 않지만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신경 쓸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인테리어를 좋아하는는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작년에 열어서 1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잘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배우로서 한 사람으로서 인생의 경험을 쌓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즐겁게 하고 있고요. 특히, 예전에는 카페나 음식점에 갔을 때 느끼지 못했던 감정도 느끼고요. 찾아주시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겸손함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더욱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배우로서 곧 다시 활동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카페 운영자로서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각이 소중한게 생각됩니다.

Q.ClubD : 카페 이름이 아카이브(archive)인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A.한주영 : 아카이브는 '기록을 보관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카페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이 좋은 추억을 갖고 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카페 위치를 골목 안쪽으로 잡은 이유가 창문을 열어두면 바람이 정말 잘 드는 곳이기도 하지만 예전의 오래된 감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거든요. 나중에는 이곳에서 작은 음악회나 북 콘서트, 소모임 등 추억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웃음)

Q.ClubD : 그렇군요. 그런데 배우와 카페 경영 2가지를 병행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요?

A.한주영 : 솔직히 모든 경영자를 다 존경하게 됐어요. 간혹 '배우로서만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각이 너무 소중하고 좋아요. 카페를 운영하기 전에는 빨리 배우로 성공하고 싶었고요.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큰 좌절감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를 부여잡고 있었던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물론 도태되는 것 같아 불안감이 밀려올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충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유를 찾고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큰 것을 얻을 수 있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얻고있고, 그동안의 저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어요. 아마



제가 배우로서 다시 연기할 때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내공을 쌓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Q.ClubD : 평소엔 운동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A.한주영 : 네, 여유가 있을 때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테니스를 열심히 하는데, 지금의 저를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테니스를 할 때 공광거리는 심장을 느낄 때마다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좋고요. 또, 기본 런지 중심 자세를 하다 보니 하체도 단단해지고, 라켓을 잡다 보니 손바닥도 투박해지는 걸 느끼는데, 지금 저 자신의 연약한 멘탈을 더욱 강하게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테니스를 마치고 나면 뒤통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고 있고요. 건강미는 자연스럽게 얻어지겠죠? (웃음)

Q.ClubD : 골프도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A.한주영 : 네, 골프도 아주 좋아하는 운동인데요. 구력은 한 4~5년 정도인데 구력은 100타 정도 수준이에요. 골프라는 운동도 참 매력적이라고요. 쉬워 보여서 스윙에 욕심을 내면 뭔가 잘 안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 잘 되는 저한테 꼭 필요한 운동이기도 한데요. 시원하게 스윙해서 복잡한 생각을 털어버리는 데도 좋은 것 같아요. 또한, 약 5시간 정도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식사도 같이하고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장시간 함께 운동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자주 라운딩을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라운딩은 물론 방송도 해보고 싶어요. 클럽디에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Q.ClubD :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실까요?

A.한주영 : 먼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이 힘드시잖아요. 다들 힘내셨으면 하고요. 우선은 카페 운영에 전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 초쯤에 다시 배우로서 준비됐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다시 활동할 계획이에요.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뜻 보면 '차도녀' 같아 보이는 배우 한주영.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면서도 솔직하고, 장난기 많아 보이는 한주영이 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끝내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어떻게 다시 설지 궁금해진다.

글 | ClubD MAGAZINE

(주)이도 최정훈 대표이사, 글로벌 매체 포브스(Fobes) 커버스토리 조명

금융전문성과 전문 운영관리 접목한 'O&M 플랫폼' 이도 창업스토리 소개



세상에 없던 'O&M 플랫폼'을 만든다

왕좌를 미치고 홀로시(가)에 나선 2세 경영인(이) 대표부와 인프라 운영관리 비즈니스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금융과 시설 통합운영관리 노하우를 접목한 비즈니스 모델은 국내외를 통틀어 이도가 처음이다. 정환용 기자 hony@chosun.com

연봉은 천백의 천수이다. 점심 메뉴 같은 사소한 고민부터 회의와 결론, 출산, 취업과 창업에 이르기까지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이걸로 잘 세우지 못하면 안 된다. 금융계를 뚫고 들어간다는 오너 2세 기업가라면 어떤가. 승계하는 숙명을 받아들이고 선의의 자제가 익숙한 그림일 대안인 이도는 '갑작스럽게' 돌연변이는 있 게 마련이다. 패턴 익숙한 상태에서 벗어난 이도의 활약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나갈 것이다.

최정훈 이도(YIDO) 대표이사도 그런 인물이다. 지난 2014년 창업에 나선 40대 젊은 CEO는 최정규 대표 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대표는 건설과 고속도로 유계소 운영을 주축으로 하는 종전그룹이다.

"본래의인 창업 전 이버지의 부를 물려받아 대표그룹에서 10여 년간 일했습니다. 경영이 무엇인지 뻔하게 아는 시간이었고, 조직관리와 인사, 임직원과의 소통과 경영 목표 공유에 이르기까지 온 가지를 맡았습니다. 들어오면 남시 경영이 지금 이도의 바탕이 됐고."

이도는 대형 오피스빌딩과 단지도 두 주로 대체투자 자산을 통합 운영관리하는 전문기업으로, 최근 부 각업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며 안정적인 성장세로 주목 받고 있다. 올 초 빈 사무실도 몸살을 앓던 서울 시청역 인근 씨티스퀘어 빌딩의 공실률을 인수 후 6개월 만에 0%로 낮춘 사례가 대표적이다. 빌딩 관리 관련 사업의 수혜를 안고 난실로 바뀌어 사법당국에서 "도대대 이도가 어떤 회사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해당 질문은 이도의 주선으로 국내 대형 생보사와 안건이 들어오도록 조율해 인수했다. 이후 임대료를 비롯해 건물 유지 보수까지 이도가 직접 관리하면서 공실률 제로를 실현 했다. 현재 씨티스퀘어에는 이도 본사와 서울사이언스 2층사가 입주해 있다.

0%로 낮춘 사례가 대표적이다. 빌딩 관리 관련 사업의 수혜를 안고 난실로 바뀌어 사법당국에서 "도대대 이도가 어떤 회사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해당 질문은 이도의 주선으로 국내 대형 생보사와 안건이 들어오도록 조율해 인수했다. 이후 임대료를 비롯해 건물 유지 보수까지 이도가 직접 관리하면서 공실률 제로를 실현 했다. 현재 씨티스퀘어에는 이도 본사와 서울사이언스 2층사가 입주해 있다.

빌딩 대형 빌딩, 공실률 제로 달성으로 화제

이도(이) 사례는 국내 대규모 사법당국 관련과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업계에 놀라게 했다. 일반적으로 전담을 주선한 금융사는 금융 조달 이후 임대차나 시설 관리 부분에선 손을 뗀다. 반면 이도는 초기 금융 조달부터 수비권, 임차인 모집, 건물 시설관리 등을 원 스톱으로 해결했다. 사업 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한 회사로 효율성을 극대화한 사례다.

최 대표는 이처럼 특정 직업을 담은 계약하는 게 그치지 않고 사무 유지·보수까지 포괄 케어하는 O&M(Operating & Management) 플랫폼' 전략을 펼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금융사가 주도하는 하이브리드형 이도 같은 전문 통합운영관리에 대한 니즈

이도는 인천수도권환경 인수 이후 시설 현대화를 단행했다. 외부 폐기물 선별 작업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옥내 설비로 바꿔 비산먼지를 억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루 처리 폐기물 규모도 3360톤에서 7200톤으로 2배, 건설혼합폐기물은 100톤에서 400톤으로 4배 늘어 업계 톱으로 도약했다.



인천수도권환경의 하루 처리 폐기물 규모는 기존 3360톤에서 7200톤으로 2배, 건설혼합폐기물은 100톤에서 400톤으로 4배 늘어 업계 톱으로 도약했다.

무동산 부문은 씨티스퀘어 공실률을 6개월 만에 0%로 낮추어 업계 톱으로 한 번을 비롯해, 최근에는 최장 10년째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상업시설의 전문 운영관리 사업권을 따내 화제가 됐다. 현재 이도는 250억 원의 씨티스퀘어 등 상업부동산 43개, 학교 기숙사 33개, 임대주택 1곳을 맡아 통합운영관리하고 있다.

인프라의 경우 단지도 포함 중심으로 원소통 운영관리를 제공해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편의까지 높이는다는 전략이다. 현재 이도는 국내 두 번째 민자고속도로인 천안-산고고속도로를 비롯해 국내 최장 단거리 연수교인 울산대교 등 7개 사업장을 운영관리 중이다.

경영 악화로 위기에 처한 자산을 인수해 가치를 키우고, O&M 기반의 통합운영관리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이 가능해 한 비결은 무엇일까? 최 대표는 무엇보다 금융 전문성을 꼽았다. 창업 초기부터 금융

국내 유일의 통합운영관리 전문회사인, O&M(Operating & Management) 플랫폼 기업 주식회사 이도 및 최정훈 대표이사의 창업스토리가 미국 글로벌 경제잡지인 '포브스(Fobes)' 코리아의 커버스토리로 조명을 받았다. 금융전문성과 전문 통합운영관리를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O&M 플랫폼'이 잇단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포브스코리아는 10월호에서 '세상에 없던 'O&M(Operating & Management)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매체는 최정훈 대표이사과 (주)이도에 대해 "대형 오피스빌딩과 민자도로 등 주로 대체투자 자산을 통합 운영·관리하는 전문기업으로, 최근 투자업계에서 눈에 띄는 활약과 폭발적인 성장세로 주목받고 있다"며 "올 초 빈 사무실로 몸살을 앓던 서울 시청역 인근 씨티스퀘어 빌딩의 공실률을 인수 후 6개월 만에 0%로 낮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초기 금융 조달부터 수익을 관리, 임차인 모집, 건물 시설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했다"며 "사업 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한 회사가 맡아 효율성을 극대화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포브스는 이와 함께 (주)이도의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산을 맡아 전문 통합운영관리로 정상화를 이룬 후 이를 바탕으로 자산가치를 확장하는 내는 '밸류 애디드(Value-added)' 전략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했다.

해당 매체는 "이도는 지난 2018년 5월 경영난을 겪던 '클럽디(CLUBD) 보온' 골프장을 금융사와 협업해 인수한 뒤 추가 설비투자를 거쳐 재개장 했다"며 "이도가 인수한 후 클럽디 보온은 1년 만에 매출이 이전보다 109% 늘어 충북 지역을 대표하는 골프장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창립과 함께 시작한 환경 사업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고, 인천에 자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인천수도권환경' 시설의 현대화가 대표적"이라며 "외부에서 진행하던 폐기물 선별 작업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옥내 설비로 바꿔 오염원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사무 공간과 직원들을 위한 휴식시설도 개선해 열악하고 낙후된 근무 환경을 정비했다"고 보도했다. 해당매체는 특히 "인천수도권환경의 하루 처리 폐기물 규모는 기존 3360톤에서 7200톤으로 2배, 건설혼합폐기물은 100톤에서 400톤으로 4배 늘어 업계 톱으로 도약했다"며 "시설 정비와 근무 환경 개선 이후 건설폐기물 처리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포브스코리아는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직원 급여는 줘야 한다"는 게 아버님의 경영 원칙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구체적인 조언보다는 경영자로서 가져야 할 철학을 조언해주실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직원들에게 '혼자서 기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늘 이야기한다"라는 경영철학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글 | ClubD MAGAZINE

O&M 플랫폼 (주)이도,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상업시설 운영 박차

국내 유일의 통합운영관리 전문회사인, O&M(Operating & Management) 플랫폼 기업 주식회사 이도(YIDO, 대표이사 최정훈)가 부산의 랜드마크로 조성되고 있는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사업의 상업시설 위탁 운영관리 사업을 따낸 가운데 상업시설 입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사업은 부산 동해남부선 미포에서 옛 송정역 사이의 폐선부지 활용해 해운대 관광특구와 동부산 관광단지를 잇는 4.8km 구간을 관광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주)이도는 미포블루라인 광장, 주차장, 정거장, 청사포정거장, 송정정거장 등 총 5곳 약 705㎡에 식음료(F&B)매장 입점 등 상업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우선 미포 정거장에는 서울 흥대 및 부산 광안리에서 키쉬(타르트) 맛집으로 유명한 키쉬미용이 1~2층 복층으로 입점할 예정이다. 또한, 해운대블루라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기념품 및 지역특산물 판매점이 미포, 청사포 정거장에 입점한다. 이밖에 송정정거장 공용부를 활용하여 푸드트럭 및 팝업스토어가 운영 될 예정이며, 방문고객 편의를 위하여 각 정거장에는 GS25 편의점이 입점할 예정이다. 이밖에 미포주차장에는 독특한 베이커리 브랜드 및 커머셜 부스를 통한 각종 테이크아웃 맛집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주)이도는 사업시행자인 해운대블루라인(주)와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사업의 상업시설 운영 관리 계약을 지난 7월 21일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글 | ClubD MAGAZINE



MZ세대(밀레니얼과 Z세대) 소비 증가에 따른 이커머스 회사에 주목해야할 때

2020년 상반기 국내 벤처 스타트업 투자 동향을 보면 투자액 기준으로 유통, 커머스 분야가 1위였다. 올 한해 대형 투자 사례 중 마켓컬리가 2,000억원의 투자를 받은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COVID-19이후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바뀐 산업들이 생겨나면서 이커머스, AI,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산업, 교육서비스, 원격근무솔루션 산업들이 혜택을 받으며 부상하고 있지만, 특히 이커머스 시장이 그 지배력을 빠르게 확대해가는 것을 짚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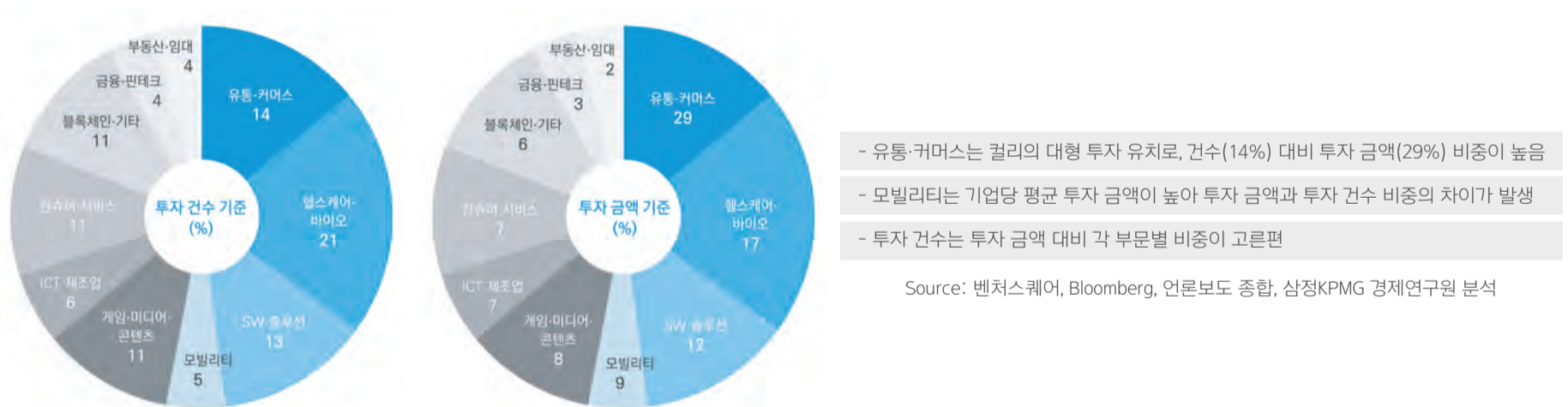
[2020년 상반기 분야별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현황]



Source: 벤처스퀘어, Bloomberg, 삼성KPMG 경제연구원 분석 Note: 유통-커머스 분야에서 컬러 제외 시 건당 평균 투자액은 111억 원

글로벌 이커머스 대표기업인 아마존의 경우 미국 온라인 커머스시장에서 2014년부터 꾸준히 분기마다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2019년 1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성장하며 역대 최고 순이익을 달성하면서 작년 미국 시장 1위를 경험했다. 기업가치 평가를 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PER (주가수익비율) 기준 아마존은 122배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탄탄한 것을 보면 이례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도 크겠지만 현 소비형태의 변화를 시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에도 네이버, 카카오, 쿠팡, 마켓컬리 등 대형 이커머스 회사를 포함하여 비상장주식 시장에서는 무신사, 오늘의 집, 아이디어스 등 다양한 이커머스 회사들이 크게 성장 중이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이커머스회사 시장은 라이브커머스의 형태로 진화 중이기도 하다. 중국의 타오바오와 징둥이 가장 먼저 도입하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면서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역시 라이브커머스를 출시 또는 준비 중이다. TBT파트너스 이람대표는 “가까운 미래에 커머스시장이 이커머스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커머스와 이커머스의 구분이 없어지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0년 상반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분야별 비중]



2019.10월 e-marketer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 인터넷 사용자가 온라인 쇼핑을 위해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이트가 구글(22%)보다 아마존(49%)을 더 많이 이용 한다고 응답하며 아마존이 쇼핑에서는 우위의 정보탐색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이버 역시 사업부문이 다각화된 한국의 대표 플랫폼 기업이지만, 여러 사업부 중에서도 향후 성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쇼핑 사업 분야라고 한다. 2016년만 해도 국내 이커머스 시장점유율 중 단일회사 기준 이베이 코리아가 18%, 그다음으로 11번가 10%, 네이버 7%, 위메프와 쿠팡, 티몬이 4% 수준으로 같았는데, 2019년 들어 네이버가 14%, 이베이 코리아가 12%, 쿠팡 10%, 11번가 7%, 그리고 카카오가 2%로 진입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면 상장회사 중 기업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 10개사 중 5개사가 유통회사인 점과 MZ 세대의 소비가 이끌어낸 회사 중 이미 조 단위의 가치를 받는 이커머스 기업이 생겨난 것 등을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변화에 발 빠른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형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태어날 때부터 태블릿과 모바일로 모든 것을 접하는 Z세대가 향후 소비의 주축이 되는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는 좋은 인사이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주가 면으로만 보면 대표 소수의 이커머스 기업들은 기업가치가 이미 성숙단계에 와있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 3년간 이커머스 시장의 빠른 성장 추이를 볼 때, 이 산업에 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기술발달로 국가 간 교류가 더 빨라지고 활발해지면서 공동된 글로벌 흐름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있고, 이로 인해 향후 글로벌 시총 상위 섹터의 상관관계도 과거보다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해본다. 미국 아마존이 시총 1위를 경험하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대비 현재 시총 상위주식들의 위치가 많이 변했듯이 국내 주식 시장의 10년 후 시총 상위 종목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글 | 하나금융투자 CLUB1센터 부장 정영주

어린 시절 동네에서 뛰놀던 편안한 목가적 풍경과 내리막의 아일랜드 그린을 갖춘 '클럽디 보은'
 속리산과 구병산의 원경을 배경으로 특별한 라운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클럽디 속리산'
 금강과 함라산의 절경과 함께 세계의 유명 골프장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멋진 코스를 갖춘 '클럽디 금강'
 감악산의 청정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하늘 위의 쉼터 '클럽디 거창'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퍼블릭 골프장의 종착지인 클럽디의 차별화 된 서비스와 함께 골프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1년 클럽디 연단체 모집

최상의 코스퀄리티와 최고의 서비스를 누릴수 있는 클럽디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클럽디 보은 / 클럽디 속리산
 ClubD BOEUN / ClubD SONGNISAN

클럽디 금강 / 클럽디 거창
 ClubD GEUMGANG / ClubD GEOCHANG



접수방법

인터넷: ClubD 각 지점 홈페이지 - 연단체 - 연단체 신청 클릭후 접수
 서 면: ClubD 각 지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연단체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ClubD 우수캐디



이선미
ClubD보은(경력8년)



이준희
ClubD속리산(경력5년)



조윤빈
ClubD금강(경력17년)



골프장 갈 땐
프라이빗 이동 서비스, 무브
MOVV GOLF
 넓고 쾌적한 11인승·15인승

베테랑 기사가 집집마다 모시러 가고!
 최적화된 동선으로 픽업시간을 최소화 하고!
 뒤돌이까지 마음 편히 즐기고!

전용기사·전용차량 골프이동서비스
MOVV GOLF
 Move Like a VIP

MOVV **NAVER** 무브골프 검색 **1877-2025**

클럽디 보은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속중초로 386
 안내 info_boeun@clubd.com 전화 043-540-8888
 예약 booking_boeun@clubd.com 팩스 043-540-8889

클럽디 속리산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평각상장로 230
 안내 info_songnisan@clubd.com 전화 043-540-8000
 예약 booking_songnisan@clubd.com 팩스 043-544-9600

드림파크CC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수도권매립지 내
 안내 alstjr916@yido.com 전화 032-560-1700
 H.p https://www.dreamparkcc.or.kr 팩스 032-560-1789

클럽디 금강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130
 안내 info_geumgang@clubd.com 전화 063-720-7700
 예약 booking_geumgang@clubd.com 팩스 063-720-7799

클럽디 거창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398
 안내 info_geochang@clubd.com 전화 055-945-2222
 예약 booking_geochang@clubd.com 팩스 055-945-6060

